



늘 곁에 두고 쓰는 제품에
경남 관광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기업명 김선수컴퍼니 대표 김용현
연락처 010-8362-8365 이메일 kyh1987_@naver.com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충훈로 91,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1층 110호

경남을 내 손 안에 담다 경남을 디자인하는 '새벽별' 김선수 컴퍼니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제품에 경남 관광 콘텐츠를 담을 수 없을까.
우리가 입고 쓰고 만지는 제품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새길 수 있다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김용현 대표는 이 질문의 대답으로
경남 관광 콘텐츠를 곁에 두고 쓸 수 있는 제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Q.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금은 관광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수컴퍼니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새벽별 디자인 및 굿즈 아이템을 바탕으로 경남관광컨텐츠를 제품에 담아내는 사업에 대해 구상하던 도중,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하여 직접 문을 두드렸었죠.

Q. 경남관광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 생각인지?

아쉽게도 아직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는 아직 발굴되지 않았거나 만들어낼 요소가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관광 트렌드를 잘

읽고 지역마다 있는 관광 콘텐츠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작해서 마케팅과 동시에 비대면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형의 서비스든 유형의 상품이든 영상과 이미지로 다양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한다면 경남 관광을 대표하는 인기 콘텐츠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Q. 경남관광을 이끌 대표주자로서 다짐이나 포부가 있다면?

경남은 바다와 산을 비롯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등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콘텐츠가 많습니다. 미완의 매력을 지닌 경남에서 열심히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각 소재를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매력을 알리겠습니다.

경남 관광 명소와 경남의 이야기가 제품 속으로 들어왔다

굿즈에 경남을 디자인하다

MZ세대에게 제품은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나’다. 제품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돋보이게 한다. 특히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어폰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 태블릿PC, 노트북 등 늘 곁에 두고 쓰는 전자제품은 자신을 표현하고 돋보이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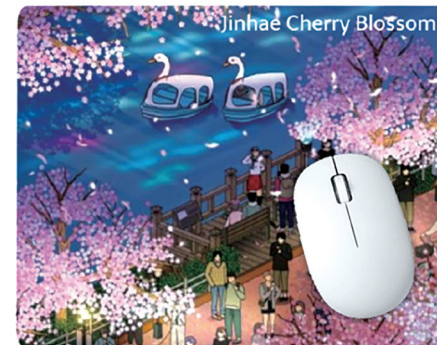
최근 들어 MZ세대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폰 케이스와 스마트폰 케이스 등에 자신의 스타일을 새기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성품이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스스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제공되는 이미지가 극히 제한적이다. 김용현 대표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 이미지를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거듭한 끝에 경남 명소를 일러스트로 만드는 콘텐츠 전문회사 ‘김선수컴퍼니’를 설립했다.



직접 만드는 경남 문화 콘텐츠

“경남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통영 동피랑과 거제 바람의 언덕, 진해 벚꽃축제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제품에 새겨 판매한다면 훌륭한 관광 기념품이 되기도 하고 경남 명소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용현 대표는 김선수컴퍼니를 통해 경남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해 그래픽 작업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경남의 명소와 명물, 문화재 등 관광 콘텐츠를 제품에 어울리도록 디자인하고 이를 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한다. 무엇보다 정해진 디자인이 아니라 제품과 이미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은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상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경남의 명소

진해 벚꽃을 소재로 한 일러스트가 에코백에 담긴다면? 에코백을 들고 다니면서 진해의 봄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거제 바람의 언덕이 일러스트가 되어 핸드폰 케이스에 담긴다면? 이 특별한 제품은 누군가의 여행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는 관광 기념품이 되기도 한다. 경남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자녀에게 줄 선물을 고른다면, 이왕이면 관광지의 특성이 새겨진 트렌디한 제품이 더 좋을 테니까 말이다.

“이렇게 경남 관광지를 사진이나 이미지, 일러스트로 만들면 감각적인 디자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관광지나 문화재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디자인된 제품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경남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수컴퍼니는 앞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사진작가의 참여를 끌어내 보다 다양한 이미지를 제품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 작가에게는 판매 수익을 나누며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해의 빛나는 봄도

거제의 바람 가득한 풍경도

디자인이 된다

제품에 경남을 새긴다 추억이 알알이 박힌다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

김선수컴퍼니는 현재 경남 관광지와 명물 등을 2D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명소를 그대로 옮기기도 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탄생시켜, 디자인만 보고도 경남을 찾아오고 싶게끔 만들기 위해서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이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남의 명소는 제품에 UV프린팅 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소비자는 경남의 이미지가 담긴 제품을 옆에 두고 날마다 명소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게 된다. 보기에 좋고, 이야기까지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제품은 MZ세대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에 새겨진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SNS 업로드하면서 경남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광지에서는 관광지의 특성을 담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 되기도 한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고 있기에 더 의미가 있다.

“김선수컴퍼니 새벽별은 누구나 갖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경남의 모습을 디자인해 제품에 담았습니다. 경남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이 여러분이 늘 쓰는 제품에 새겨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